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2월 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044-203-4210), 권주현 사무관(4215)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 김주태 팀장(02-3771-8217), 한형빈 선임연구원(0396)

주형환 산업부 장관 "기업과 전면 소통을 통해 기업활동 애로 해소에 최선 다해"

- 주 장관, 30대 그룹 사장단과 첫 간담회
-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회복을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4일(목)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하여 **30대그룹 사장단과 첫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시간/장소 : '16. 2. 4(목) 08:00~09:30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 참석자(40여명) : 산업부 장관, 30대그룹 사장단(삼성, 현대차, SK, LG 등)

* 산업부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는 **'14.1월 이후, 약 2년만에 개최**

□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 지원의지**를 강조

○ 산업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투자애로는 끝까지 해결**토록 노력

○ 아울러, **수출 활력 회복, 투자 확대 및 사업재편**에 30대 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

□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는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

○ 한편, **전경련은 2월말 경** 개최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계기에 **'16년 30대그룹 투자계획을 발표** 예정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수요 확대정책만으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

□ 참석자들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였으며, 민관이 합심하여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함

※ 토론내용은 행사 종료후 별도 브리핑 예정

□ 아울러 참석자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등을 건의

○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

□ 주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 표명**

○ 금년 중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개정**을 통해 **시범사업 진행**

* 일정 지역 내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 허용

○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 검토,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 강화

○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전력**(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 적용 제외**

○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함께,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AIIB) 등과의 **공동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권주현 사무관(☎ 044-203-4215),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 김주태 팀장(☎ 02-3771-82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04 11:06:51

참고 1 산업부 장관 주재 30대 그룹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 '16.2.4(목), 08:00~09:30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3F)

○ 참석대상 (총 30여명)

- (정부) 산업부 장관, 담당 실·국장

- (민간) 30대 그룹 사장단, 전경련 부회장 등

□ 세부 진행순서(안)

사회 :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

시 간	내 용	비 고
07:58~08:00(02')	기념촬영	· 에메랄드룸(3F)
08:00~08:05(05')	개회사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08:05~08:15(10')	**모두 말씀**	**· 산업부 장관**
08:15~08:25(10')	주제 발표	· 전경련 (조찬 병행)
08:25~09:25(60')	**건의·답변**	**· 산업부 장관 주재**
09:25~09:30(05')	**마무리 말씀**	**· 산업부 장관**

참고 2 참석자 명단 (25명)

기업집단명	소속사	성명	직급
삼성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SK에너지	김 준	사장
LG	LG	하현회	사장
롯데	롯데	소진세	사장
포스코	포스코	최정우	부사장
GS	GS E&R / GS EPS	손영기	사장
현대중공업	현대 오일뱅크	문종박	사장
한진	한진	서용원	사장
한화	한화케미칼	김창범	사장
KT	KT	맹수호	부사장
두산	두산중공업	김명우	사장
신세계	이마트	이갑수	부사장
CJ	CJ	조영석	부사장
LS	LS산전	김원일	부사장(대표이사)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김열중	부사장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서재환	사장
대림	대림산업	오규석	사장
부영	부영주택	김시병	사장
동부	동부메탈	곽원렬	사장
현대	현대엘리베이터	김병효	전무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동호	사장
OCI	OCI	배정권	부사장
효성	효성	이상운	부회장
S-OIL	S-OIL	김동철	사장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04 11:06:51

※ 실제 발언내용은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그룹 간담회
장관님 모두 말씀

2016. 2. 4 (木)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인사 말씀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창의적 해법을 찾는
열린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최근 우리 산업의 상황

우리 산업이 어렵습니다.

작년 수출이 부진한 데 이어,
금년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흥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외 여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대체산업의 창출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04 11:06:51

지난 15년간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주력 수출품목군 또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변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3. 산업정책 방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ICT 융합,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신산업 진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0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지원 수단, 예산, 세제, 금융, 즉,
R&D, 인력, 판로, 통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기자재, 서비스업까지 포괄하여 풀고,
유효성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솔선하여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에너지 분야 규제를 풀겠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개발에
내년까지 약 7조원의 R&D 자금을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를 통해
올해 6조 4천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하여
초기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활력법이 제정되면
동 법의 시행을 위해 공급과잉 기준 등을
업계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04 11:06:51

최근 중국도 철강 분야에서
1억 5천만 톤의 과잉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가속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출부진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품목, 시장, 주체, 방식 및 지원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주력품목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
이란, 쿠바 등 경제 제재 해제 국가는
시장 선점을 위한 경협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중국 등 구조 전환국은
화장품, 농수산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내수기업 3천개사를 수출기업화하고
종합상사·유통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정부 모든 부서와 수출 지원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4. 당부말씀

정부는 내수와 수출회복을 위해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21조원의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경기 보완대책을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의 주력이자 버팀목인
30대 그룹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보다 빨리 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을 창출하고,
세상을 혁신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산업부가 앞장서서
기업인 여러분과 전면적으로 소통하고,

투자 걸림돌이 있다면,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04 11:06:51